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5. 1.

CEPA Insight

- K-할랄식품, 인니 수출 호조...10월까지 2억 1100만 달러 달성 [2024 인도네시아 경제 5대 뉴스]
- 최저임금 6.5% 인상 확정, 노동부 장관령 발표 [2024 인도네시아 경제 5대 뉴스]
- 인니,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2024 한인경제 5대 뉴스]
- 하나은행, 인니 루피아 직거래 서비스 시행 [2024 한인경제 5대 뉴스]
- 인천공항, 재외동포 증명서 발급 편리화 [2024 한인동포 5대 뉴스]
- 부가세 인상계획 사실상 철회...사치품만 올리기로
- 충남창경센터, 인니 서자바주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본격화
- 충남 스타트업, 인도네시아 반둥서 신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

■ K-할랄식품, 인니 수출 호조...10월까지 2억 1100만 달러 달성

- K-할랄식품이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수출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2024 자카르타 국제식품박람회(하노이)에서 한국은 4,2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은 2억 1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커피, 음료, 라면,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이 성장에 기여했으며, K-할랄푸드 쿠팡쇼는 현지 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소비 시장과 할랄 수요 증가는 K-할랄 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 12. 31.)

■ 최저임금 6.5% 인상 확정, 노동부 장관령 발표

- 인도네시아 노동부 Yassierli 장관은 10월 4일 2025년 최저임금 산출 규정을 담은 장관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주(UMP) 및 시/군(UMK) 단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5% 인상된다. UMP는 2024년 UMP와 2025년 인상분을 합산해 계산되며, 인상분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된다. UMK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주 단위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은 12월 11일까지 발표되며, 시/군 단위 최저임금은 12월 18일까지 발표된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위험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주지사가 결정한다. 이번 6.5% 인상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난달 발표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 자카르타의 UMP는 약 539만 루피아, 중부 자와는 약 218만 루피아로 예상 된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 12. 31.)

■ 인니,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한다고 10월 19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은 18일부터 할랄인증을 의무화했지만, 국내 중소기업 및 수입식품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2026년 10월 17일까지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인니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 12. 31.)

■ 하나은행, 인니 루피아 직거래 서비스 시행

- 하나은행은 9월 30일부터 한·인니 양국 중앙은행의 '현지 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따라 원·루피아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은 환전 수수료를 줄이고,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루피아 송금이 가능하다. 향후 외환거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강화가 예정되어 있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 12. 31.)

■ 인천공항, 재외동포 증명서 발급 편리화

- 재외동포청은 12월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부종합센터에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송도에서 이전한 이 분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과 귀국신고 접수, 행정민원 상담을 제공하며, 다른 부처 민원실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덕 청장은 민원실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고, 신연정 자문위원은 증명서 발급 편의 향상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 12. 31.)

■ 부가세 인상계획 사실상 철회..사치품만 올리기로

-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몇 시간 전에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세율 인상이 일부 사치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되도록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 전용기, 요트, 고급 부동산, 고급 자동차 등에만 세율이 12%로 인상되고, 나머지 품목은 11%를 유지한다. 정부는 부가세율 면제 품목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등의 정책은 그대로 시행한다. 원래 부가세 인상으로 75조 루피아의 세수 증가를 기대했지만, 이번 조치로 추가 세수는 3조2천억 루피아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 단체와 노동자들의 반대에 따라 정부는 부가세 인상 철회를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2025. 1. 2.)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현지 통화 직거래 시행>

■ 충남창경센터, 인니 서자바주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본격화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충남창경센터)는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ODA 사업 일환으로, 12월 10-11일 반둥시에서 열린 제2차 한-인니 공동작업반 회의에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와 실시설계 착수가 이루어졌다. 충전 인프라는 반둥시의 주요 BRT (Bus Rapid Transit) 터미널인 루이판장(Leuwi Panjang)과 치차흠(Cicaheum)에 설치될 예정이며, BRT 설계팀과 협력 중이다. 충남창경센터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회의 등을 통해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 12. 15.)

■ 충남 스타트업, 인도네시아 반둥서 신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충남창경센터)는 11월 11-12일 인도네시아 반둥시에서 '반둥 스타트업 테크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서밋은 중소벤처기업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과 기후테크 분야에 관심 있는 8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행사에는 현지 투자자와 스타트업들이 참여하여 IR 피칭, 세미나, 1:1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창경센터는 싱가포르의 초기 투자사인 Meet Ventures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과 아세안 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 12. 15.)

		
<p>(출처 : 한인포스트)</p> <p><2024년 인도네시아 식품박람회(SIAL INTERFOOD) 한국관 방문객, 2024.11.13 Jakarta aT Center></p>	<p>(출처 : 한인포스트)</p> <p><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현지 통화 직거래 시행></p>	<p>(출처 : 한인포스트)</p> <p><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국가예결산 확정회의에 참석했다.></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2024.12.12></p>	<p>(출처 : 연합뉴스)</p> <p><충남창경센터, '반둥 스타트업 테크 서밋' 성료.2024.12.12></p>	